

# IMF 한파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자



최 상 배  
대한양돈협회 회장

**양**돈인들의 가장 친근한 벗인 월간 양돈이 오늘로 창간 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월간 양돈이 양돈업계를 선도하는 전문 잡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과 양돈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광고주 여러분과 바쁜 시간을 쪼개 옥고를 써주신 집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년동안 월간 양돈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 양돈업계에 최신 양돈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양돈농가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양돈농가들에게 전달하는 민관을 연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습니다.

월간 양돈은 이제 성년식을 앞둔 청년답게 새로운 신기술과 정보를 찾아 세계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자기쇄신을 통하여 정보화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끝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양돈업계는 유사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전면 개방된 돼지고기 수입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불어닥친 IMF 한파는 양돈업계를 강타한데 이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IMF 한파로 사료값과 기타 생산자재값이 40~50% 폭등하여 돼지 생산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감소와 실업 증가로 소비감소는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돼지가격은 생산비를 크게 밀도는 수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양돈산업의 위축에 따라 사료와 동물약품, 축사시설 및 기자재 등 연관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로 외식비와 식료품의 감소가 두드러져 향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전망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MF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마디로 경쟁력 없는 농장과 산업은 "퇴출"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 유동성 자금 사정이 나빠져나 생산성이 낮은 양돈장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부도나는 양돈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중순에 경쟁력이 없는 55개의 기업을 "퇴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또 내 농장의 생산성만 높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 농장의 생산성이 다른 농장에 비해 높으면 더 오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양돈산업 자체가 외국에 비해 경쟁

IMF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마디로 경쟁력 없는 농장과 산업은 “퇴출”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 유동성 자금 사정이 나쁘거나 생산성이 낮은 양돈장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부도나는 양돈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중순에 경쟁력이 없는 55개의 기업을 “퇴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또 내 농장의 생산성만 높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 농장의 생산성이 다른 농장에 비해 높으면 더 오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양돈산업 자체가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산업으로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모든 양돈농가가 “퇴출”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IMF 시대의 냉엄한 국제 현실인 것입니다.

력을 갖추지 못하면, 산업으로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모든 양돈농가가 “퇴출”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IMF 시대의 냉엄한 국제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농장의 생산성 향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양돈산업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내 농장의 생산성 향상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가능하겠지만, 산업 자체의 경쟁력은 개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신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차피 양돈업계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농장에서는 이제 프로정신을 갖고 생산성을 극대화 해야만 합니다. 자가배합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의 박멸·소모성질병의 콘트롤·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국가 방역체계 구축, 소비자와 생산자를 곧바로 연계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산업의 주인인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제도의 입법, 분뇨처리시설 자금의 전액 국고보조를 통해 산업구조를 견실하게 해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지난 6월 16일 모임을 갖고 무임승차자 없는 축산자조금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존의 관행과 틀을 과감히 깨뜨리는 등 의식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문 여기저기에 널부러져 있는 각종 거품과 비능률, 비효율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산업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전개해 양돈산업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월간 양돈은 창간 19주년을 맞아 우리 양돈업계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양돈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끄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월간 양돈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養豚**